

운동주 시세계의 다층적 함의: 시각각과 사유의 관점에서*

황 석 현**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운동주 시에 나타난 색채감각을 중심으로, 다층적 관계망과 색채가 그의 시세계에서 형성하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색채감각은 운동주가 자신의 시세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상상적 기표로 작용했으며, 그의 시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핵심적 요소로 기능한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색채를 운동주의 자전적 경험, 사회·문화적 사건 변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식민지 현실과 그의 시적 주체가 형성한 정동적 양태를 드러냈다. 특히, 운동주는 일제강점기 한민족의 고통과 동년배들의 강제 징용 희생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색채감각을 통해 표현하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성찰과 정체성 회복을 모색했다. 그의 시는 보편적 사랑과 자유의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태적 휴머니즘 세계관을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운동주의 색채감각은 심미적 장치를 넘어 역사적 사건과 연관된 자기 성찰과 공동체적 사랑의 기호로 작용하며, 생명과 우주적 조화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세계관을 드러냈다.

■ 주제어 ■ 시각각과 사유, 정동(情動), 보는 주체, 붉은빛, 검은빛, 흰빛, 상상된 공동체

* 본 논문은 석사 학위 논문의 부분 요약 및 수정·보완본입니다.

** delispapa@hanmail.net

1 머리말

본고는 운동주 시에 나타난 보는 주체의 시각각을 통해 인식되는 시각성을 중심으로, 식민지 시대의 현실 인식과 시적 사유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보는 주체의 시각각과 그 인식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양가성과 운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운동주 시세계가 지향하는 인륜적 상상된 공동체와 엘랑비탈(*elan vital*)의 정신적 함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운동주 시인의 전기적 원체험과 민족주의 이념의 시각각을 검토하고, 1930~1940년대 일제강점기 식민 권력 하에서 발생한 사회·문화사적 사건 변동이 그의 시에 드러난 정동(情動) 양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특히 시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고 고백적인 장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시적 화자가 실제 시인과 자주 동일시된다는 점에 주목한다.¹⁾ 운동주 시의 경우, 선행 연구를 통해 이러한 주관적 동일시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운동주가 창작한 시가 그의 은유적 존재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은유적 존재성이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존재 양상을 가리킨다. 이는 물리적·직접적 존재를 넘어, 개념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존재를 포함하며, 운동주의 시에서 그의 내적 갈등과 시대적 현실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핵심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

1)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2, 280~283쪽, 참조.

운동주 시에 대한 연구는 고석규의 「운동주의 정신적 소묘」²⁾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고석규는 운동주의 시가 가혹한 시대와 대립하는 내면적 갈등을 반영한다는 점을 분석하며, 그의 시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는 운동주의 시적 세계가 단순한 개인적 고백에 그치지 않고, 식민지 현실 속에서의 고뇌와 저항, 그리고 이를 초월하려는 시적 사유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³⁾

운동주 시인은 식민본국의 식민 통치가 맹위를 떨치던 1917년 12월 30일, 만주국 간도성 화룡현 명동촌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도시샤대학에 유학하던 중 사상 불온과 대한제국 독립운동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1945년 2월 16일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고초 끝에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운동주가 적지의 형무소에서 타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민족은 일제의 압제를 벗어나 국권(주권, 영토, 국민)을 되찾게 된다.

운동주가 시를 집중적으로 집필한 시기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암흑기였던 일제강점기였다. 따라서 그의 시세계를 온전히

2) 고석규가 사화집 『초극』에 발표한 글로 그는 글의 말미에 “운동주 그는 희박적 우주에의 부단한 대결로 말미암아 끝내 제명된 젊은 수인(囚人)이다. 우리들은 아무 체계도 수립도 없이 무한행렬을 기피하지 않았던, 그의 무자비한 내전을 어떤 정신적 의미에서 이야기할 더 많은 자리를 사양치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석규, 「운동주의 정신적 소묘」, 『초극』, 삼협문화사, 1954.

3) 이남호는 고석규의 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모호하고 불분명한 글이긴 하지만, 운동주 시의 내면의식과 심상과 심미적 요소들이 일제 암흑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존적 몸부림이었으며, 시대의 위협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정신력으로 버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운동주 시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두가지 점-하나는 운동주의 시가 가혹한 시대와의 대립에서 성립하지만 그 대립은 직접 투쟁의 양상을 띠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갈등의 양상을 띠는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주의 시들이 모두가 동일한 정신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한 정신적 갈등의 노정을 점진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을 어렵듯이나마 인식하여 그의 시 세계를 변증법적인 흐름으로 파악했다는 점-을 암시해 주었다고 하였다. 이남호, 「운동주 시의 의도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86, 3쪽.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문화사적 사건 변동 속에서 운동주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시적으로 표현했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그간 운동주 시 연구는 주로 시인론과 작품론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인과 작품 간의 유기적 상관성에 초점을 맞춘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운동주를 저항 시인으로 규정한 연구, 실존주의 관점에서 그의 내면 의식을 분석한 연구, 운동주 시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에 초점을 둔 연구, 그리고 그의 시에 나타난 기호론적 접근, 문체 및 상징 체계 분석 등 다양한 작품 내재적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운동주 시는 초기 연구에서 통상적인 민족 저항시라는 관점⁴⁾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이후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관점이 운동주의 시세계를 단순화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점차 그의 시를 외재적 관점을 수용하되, 젊은 지식인의 지성적 고뇌와 자아 성찰이라는 내면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 연구 관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운동주 시를 단정적으로 통상적인 민족 저항시로만 읽는다면, 그의 시세계는 도식적이고 축소된 해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운동주가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전기적 사실과 일제강점기에 그의 시가 씌어졌다는 역사적 배경만으로 시세계를 규정할 경우, 그의 시에 내재된 시적 감각과

4) 김윤식·김현은 운동주를 이육사와 함께 식민지 후기의 저항시를 대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운동주와 이육사가 저항시를 쓰고 옥사하였지만, 이육사는 벼랑 끝 식민지 민족 위기를 극복할 인간의 불완전성이나 한계를 극복한 이상적 인간을 지향한다는 반면, 운동주는 초월적 세계(객체지향)에서 그 극복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2001, 337쪽.

사유의 양상, 그리고 그 함의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운동주는 식민지 조선의 식민 통치 속에서 만주 명동촌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이 시기의 감각적 지각 경험은 그의 시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원체험으로 작용하며, 세계에 대한 신체적 반응과 우연성⁵⁾ 속에서 삶의 목적과 지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본 연구는 운동주의 시를 단순히 폭력적 사건(직접적, 간접적, 문화적 폭력)들에 대응하는 투쟁적 저항시로 규정하는 것을 지양하며, 그의 시세계에 깊게 깃든 자기 성찰과 감각적 사유를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운동주의 시에 나타난 색채감각을 중심으로 그의 현실 인식과 정동적 양태를 분석한다.

운동주 시에서 색채감각⁶⁾은 특히 주목할 만한 요소로, 이는 그의 시에 빈번히 등장하는 색채 이미지와 색채어를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색채감각은 시인의 감각적 경험과 현실 인식을 반영하며, 시대의 고통과 내적 성찰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색채는 물리적 빛의 자극이 주체의 시각적 인식에 반영되는 감각⁷⁾으로, 그 자체로 강력한 정서적, 지각적 효과를 유발⁸⁾한다.

5)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최성화·김지영·박해정 옮김, 『정동 이론』, 갈무리, 2015, 58쪽.

6) 색채는 보는 주체의 시각과 관련된 근원적인 자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각은 다른 감각(청각, 촉각, 후각, 미각)들과 마찬가지로 보는 주체의 감각 운동을 통해서 분리와 대립, 혼합과 결합, 고양과 중화, 전달과 분배 등을 통하여 시각성을 드러낸다. 시각은 이러한 일 반적인 자연적 공식들에 의해 잘 파악된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장희창·권오상 옮김, 『색채론-자연과학론』, 민음사, 2003, 41쪽.

7) 눈은 색을 보는 순간 즉시 활동 상태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본성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자리에서 다른 색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때 생겨나는 색은 기존의 색과 함께 전체 색채환의 통일성을 내포하고 있다. 각각의 색은 그 특수한 느낌을 통해서 시각성에 보편성을 추구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장희창·권오상 옮김, 위의 책, 258쪽.

곽금남의 연구(「운동주 시의 의식세계」)에 따르면, 운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실린 80편의 시에서 색채어는 총 47개로, 이 중 파란색(15개)과 흰색(14개)이 전체의 61.7%를 차지한다. 이러한 색채는 운동주의 유년기 기독교적 순결 의식(9)을 반영하는 동시에, 시대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가 갈망한 이상과 정서를 대변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이러한 색채의 상징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해석에 머물렀다.

운동주 시에서 색채감각은 단순한 미적 표현을 넘어, 그의 시세계 전반을 관통하는 상상적 기표로 작용한다. 그의 시 119편 중 108편¹⁰⁾에서 색채감각이 등장하며, 색채어와 색채 이미지는 총 345회¹¹⁾ 사용되었다. 이는 운동주가 색채를 단순히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대상과 사물의 고유 이미지를 통해 색채의 함축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검열과 억압 속에서 문학적 표현을 통해 시대적 현실과 내적 고뇌를 담아낸 독특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색채는 특히 하강적이며 상승적인 자의식을 드러내며, 운동주의 지성적 고뇌와 내면적 저항의 양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파란색은 정신적 성숙과 회복을 상징하는 동시에, 현실적 고통과 대비되는 윤리적 성찰의 이미

8) 하향 처리는 이미 습득된 지식이나 정보들을 이용해서 자극을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하향 처리는 일반적인 범칙에서 추론을 통해 특정한 사례 및 대상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사용되는데, 색채는 동일한 색채라도 사람마다 다른 것을 의미하고, 동일한 사람에게서도 맥락에 따라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9) 곽금남, 「운동주 시의 의식세계」, 위의 논문, 88쪽.

10) 「가슴 1」, 「빗자루」, 「무얼 먹구 사나」, 「달 2」, 「겨울」, 「호주머니」, 「산울림」, 「팔복」, 「할아버지」, 「개 2」, 「장」 등 11편의 시에서는 색채감각이 나타나지 않는다.

11) 황석현, 「운동주 시에 나타난 색채감각 연구」, 서울과기대 석사학위 논문, 2020, 92~112쪽.

지를 강화한다. 이러한 색채감각은 운동주의 섬세한 내면 세계와 시대적 현실의 갈등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운동주 시의 색채감각에 대한 연구는 문정련¹²⁾, 한예찬¹³⁾, 곽효환¹⁴⁾, 김현자¹⁵⁾, 곽금남¹⁶⁾, 윤향기¹⁷⁾, 임이랑¹⁸⁾ 등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방대한 연구량에 비해 색채감각의 총체적 해석은 아직 미흡하다. 특히, 운동주의 시에 나타난 색채가 한민족 공동체의 아픔과 보편적 자유 박탈의 시대적 경험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그의 색채적 표현이 내면적 갈등과 자아 성찰을 어떻게 이미지화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는 심화될 필요가 있다.

시각은 감각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현실 인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운동주의 색채감각은 그의 시적 사유를 통해 이러한 인식 과정을 구체화한다. 운동주 시의 색채감각은 시대사적 사건들과 얽혀 있는 내적 갈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그의

-
- 12) 문정련, 「운동주 시의 자아인식 및 현실인식 연구」, 순천대 석사학위 논문, 2007.
 - 13) 한예찬, 「운동주 시 연구-현실인식과 동심 지향성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제19집, 2010.
 - 14) 곽효환, 「운동주의 현실인식과 시적 응전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5집, 2017.
 - 15) 김현자의 「자화상의 내면적 깊이와 아청빛 우주」는 운동주의 시를 색채이미지 관점에서 본 최초의 논문으로 그 의의가 있겠으나, 운동주 시에 나타난 우물의 아청빛 이미지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김현자, 「자화상의 내면적 깊이와 아청빛 우주」, 『새국어생활』 제8권 3호, 1998.
 - 16) 곽금남은 「운동주 시의 의식세계」는 운동주 시집 초판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나타난 색채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운동주가 자신의 의식세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색채어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곽금남은 운동주 시의 주요 색채어를 푸른색과 흰색으로 보고 있지만, 분류한 색채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의미화하는 과정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또한, 색채이미지를 제외시킨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곽금남, 「운동주 시의 의식세계」,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99.
 - 17) 윤향기 「박목월과 운동주의 동시에 나타난 색채어 분석」는 운동주 동시에 나타난 색채어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운동주의 동심 지향 의식과 색채어의 관계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겠으나 그 분석 대상에서 색채어 이외에 색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는 제외되었다. 윤향기, 「박목월과 운동주 동시에 나타난 색채어 분석」, 『비평문학』 제35집, 2010.
 - 18) 임이랑 「운동주 시에 나타난 푸른빛과 자아의 투쟁·성숙」은 푸른빛 중에 초록빛을 제외하여 색채 연구 범위가 단일한 푸른빛에 한정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다. 임이랑, 「운동주 시에 나타난 푸른빛과 자아의 투쟁·성숙」, 『이화어문논집』 제28집, 2010.

시세계가 지닌 다층적 함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운동주의 작품에서 약 1/3을 차지하는 동시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운동주의 동시¹⁹⁾는 태어남과 살아감, 그리고 죽어감이라는 성장 주체의 타자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자기동일성 내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적 변화의 궤적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운동주의 동시를 그의 시세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바라보며, 어린이의 호기심과 의구심 어린 시선을 통해 식민지 현실과 가시적 세계를 마주하는 운동주의 시세계를 새롭게 해명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식민 권력 하에서 발생한 사회·문화사적 사건들의 변동이 운동주 시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운동주는 자신이 피투된 삶에서 중일전쟁(1937), 태평양전쟁(1941), 황국 신민화 정책, 창씨 개명 정책 등, 시대를 규정하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과 직면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운동주 시에서 정동(情動) 양태로 드러나며, 그의 시적 응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식민지 현실 인식에 따른 정동 양태를 시 「무서운 시간」과 「또 다른 고향」을 통해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운동주의 작품이 당대의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역사·전기적 비평관점²⁰⁾을 참고하여, 그의 생애와 시대를 면밀히 검토한다.²¹⁾

19) 기존 연구에서 운동주의 동시는 시에 비해 그 중요성이나 문학적 가치가 폄하되어온 경향이 있다. 운동주의 동시에 대한 가치 폄하는 주로 정치용의 모작이라는 측면, 한 시인의 시세계는 서툰 습작기에서 완숙기로 발전해 간다는 발전론적 측면, 동시는 시인의 유아기 퇴행적 혹은 낭만적 세계인식의 근거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김흥규, 「운동주론」, 『문학과 역사적 인간』, 창작과 비평사, 1980, 112~157쪽.

20) 운동주의 시는 발표를 염두에 두고 쓴 시가 아니라 일기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내적 갈등을 진실하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신의 생활 태도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내밀한 고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남호, 앞의 논문, 1986, 15쪽, 참조.

21) 이러한 비평적 관점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시인의 생애와 작품의 의미를 지나치게 연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의도의 오류'를 경계한다. 즉, 생애와 작품 사이의 연관성을

3장에서는 운동주가 성장 주체로서 붉은빛 이미지를 매개로 기억소 단위의 회상 작용을 통해서 타자 관계 맺기를 통한 자기동일성 재구성 과정을 조망한다. 시 「초 한 대」, 「거리에서」, 「밤」, 「사과」, 「식권」, 「투르게네푸의 언덕」을 통해서 이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타자 관계 맺기 조망의 기제와 함께, 이를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시적 주체의 양상을 분석한다. 운동주의 시는 개인적 고뇌와 사회적 맥락을 연결하며, 그의 시세계에서 내면적 성찰과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탐구한다.

4장에서는 일제강점기라는 인류사적 비극과 폭력적 광기에 희생당한 타자들에 대한 애도의 윤리를 중심으로 운동주 시에 나타난 인륜적 상상된 공동체와 엘랑비탈 지향성을 규명한다. 시 「초 한 대」, 「슬픈 족속」, 「새벽이 올 때까지」, 「바람이 불어」, 「산림」, 「별 헤는 밤」, 「무제(서시)」, 「창구멍」, 「햇빛·바람」을 통해서 이를 해석하고자 한다. 운동주 시의 애도의 감정적 표현을 넘어, 타자의 고통에 대한 윤리적 주체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보편적 인간애와 자유의지를 노래하는 과정으로 확장된다.

운동주의 시에서 드러나는 보는 주체로서의 시감각과 정신적 함의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고자 괴테 색채론, 정동 이론, 물질적 상상력 이론, 색채심리 이론, 그리고 시대적 인지 양식과 관련된 시각·문화적 관점²²⁾을

탐구하되, 이를 필연적 등식으로 단정하지 않고 운동주 시의 자의식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2) 괴테는 색채를 자연과 인간과 물질이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적 '원형상'으로 봄으로써 시각 문화를 이루는 시각 체제의 원리를 자연의 '총체성'의 원리로 파악하였다. 괴테는 색채를 '양극성'과 '총체성'을 통해 대상과 주체의 부단한 상호작용으로 규명하였고, 그것은 현대적 시각문화의 쌍방향성과 유사한 시각 구조이며 괴테 색채원리의 현대적 의의이다. 이윤민, 「시각 문화적 관점에서 본 괴테의 색채론」,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1권 4호, 2007, 59쪽.

일부 참고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운동주 시의 색채감과 시적 사유를 시대적, 감각적 맥락 속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2 식민 권력과 정동(情動) 양태

운동주는 1917년 북간도 명동마을에서 태어나 명동소학교 시절과 용정·평양의 중학교 시절, 연희전문학교 시절을 경유하며 지성적 성장을 이뤄갔다. 그는 대타자(한민족, 예술, 담론 등)의 응시라는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시점을 경유하여 에고를 형성하는 동시에 가시적 세계의 사물 및 타자들과 상상적 관계를 맺었다. 주체에게 가시적 대상들과 상상적으로 관계 맺게 해 주는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보는 방식’은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개념과 동형적이라고 볼 수 있다.²³⁾

북간도 명동마을과 명동소학교 시절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 공동체로서 운동주의 생애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도된 당시 공산당 일원의 살인·방화 같은 흉악 범죄에 따른 정동적 사건²⁴⁾, 그리고 삶을 영위하는 장소를 둘러싼 광활한 시각 세계(인간의 경험과 인지, 문화적 맥락이 결합된 총체적 세계), 생성과 변화, 소멸의 과정이 엮이는 능·소산적 자연은 운동주의 예술가로서의 시적 감수성이 형성된 배경이 되었다.

23)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도서출판 한나래, 2003, 99~102쪽, 참조.

24) 정동은 스피노자에 의하면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위축하는 신체의 변용이면서 그러한 관념을 뜻하며, 브라이언 마수미에 의하면 다성적인 마주침에 의한 파동적 상호작용을 그 특징으로 한다. 스피노자, 강영계 옮김, 『에티카』 서광사, 2007.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2018. 참조.

또한 1930년대에서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식민 권력 파시즘 문화사(군사통치)의 억압적 폭력성에 직면한 운동주의 지성적 고뇌는 그의 현실 인식과 시세계의 한 축을 이룬다. 기독교 문화에 대한 종교 탄압과 신사참배 강요는 운동주에게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더욱 강렬히 인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동적 사건은 특정 범주나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무한한 잠재성을 지닌다. 정동의 힘은 관계의 결착을 형성하거나 퇴적물을 벗겨내는 작용으로, 이는 정동하고 정동되는 몸의 능력을 통해 발현된다. 사유 자체가 체화된 몸이라는 점에서 정동은 인식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²⁵⁾

일제는 만주사변(1931)을 시작으로 대륙 침략과 정복을 위한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전쟁(1941)을 이어갔으며, 이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황국신민화 정책 등을 강행했다. 일부 피식민자들은 자기 정체성을 황민화하여 전쟁의 대의를 지지해야 했다. 이는 조선의 민족문화 요소²⁶⁾를 말살하고 식민사

25) 정동은 사이(in-between-ness)의 한가운데서, 즉 행위 하는 능력과 행위를 받는 능력의 한 가운데서 발생한다. 정동은 순간적인, 그러나 때로는 좀 더 지속적인 관계의 충돌이나 분출 이면서 힘들과 강도들의 이행(移行, passage) 혹은 이행의 지속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동은 몸과 몸(인간, 비인간, 부분-신체, 그리고 다른 것들, 다성적인 마주침들)을 지나는 강도들에서 발견된다. 또 신체와 세계들 주위나 사이를 순환하거나 때로는 그것들에 달라붙어 있는 파동적 울림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강도와 울림 사이의 이행과 변이형을 그 자체에서 발견된다. 정동은 의식화된 앞 아라나 곁에 있거나 또는 아예 그것과는 전체적으로 다른 내장의(visceral) 힘들, 즉 정서(emotion) 너머에 있기를 고집하는 강력한 생명력(vital forces)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 힘들은 우리를 운동으로, 사유와 확장으로 이끌어 가면서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쌓이는 힘-관계들 사이에 우리를 잡아 두거나 다루기 힘겨운 이 세계에 압도당한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기도 한다. 실로 정동은 몸이란 것의 세계로의 초대이면서 거부라고도 볼 수 있다. 세계의 완고함과 리듬들 속에 그리고 그 틈에 우리 몸이 계속 침잠해 있음을 보여주는 끈질긴 증거인 것이다.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윌스, 최성화·김지영·박혜정 옮김, 앞의 책, 2015, 14~15쪽.

26) 한국의 민족문화는 성(姓)을 혈연공동체의 큰 단위로 매우 중시하였는데, 국토애와 밀착되어 민족의식과 뿌리 깊이 융합되어 있는 것이었다. 일본이 창씨개명을 강행한 것은 한국식 성명을 말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①일본인과 구별되는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②민족문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한국 성명 문화를 없애며, ③민족의식과 결합되어 있는 '관향'과 '종친'의식을 소멸시키고, ④일본 가족제도를 이식하며, ⑤일본인 의식을 주입하여, 한국인을 침략전쟁에 동원 투입하고, ⑦궁극적으로 한국 청년들에게 강제 '징병제'를 실시하여 침략전쟁에 노예적 준일본인으로서 총알받이로 희생시키려고 목적인 것이었다. 신용하, 『일제의 한국민족말살·황국신민화 정책의 진실』, 문학과 지성사, 2020, 176쪽, 참조.

관을 강화하여 조선인을 전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였다.

운동주는 일본의 강제적인 동화정책인 황국 신민화 정책에 따라 히라누마 도주(平沼東柱)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했다. 이는 그가 자아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 사이에서 느꼈던 갈등과, 일제의 억압적인 동화정책에 맞서 자신의 시를 통해 저항하고자 했던 노력으로 이어졌다. 창씨개명은 운동주의 시세계에서 식민지 현실의 부조리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정동적 감정의 복합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폭력적 억압과 수탈적 구조는 한민족 공동체에 분열과 대립을 초래했고, 운동주의 정신적 상태에 혼란을 가중시켜 불안과 절망의 정동적 상태를 심화시켰다. 그는 식민지 상황에서 나약한 지식인의 한계에 직면하고, 「무서운 시간」에서 드러나듯 공포와 절망감에 따른 정동적 양태와 부정적 현실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처럼 운동주는 폭압적인 현실에 맞서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찬 시대를 직시하며, 절망 속에서 인간적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적 사유를 전개했다.

거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가랑잎 이파리 푸르러 나오는
그늘인데,/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 있소//한번도 손들어보지
못한 나를/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나를 부르는 것이오//일이 마치고 내 죽는 날 아
침에는/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텐데//나를 부르지 마오.

「무서운 시간」 전문²⁷⁾

27) 운동주, 홍장학 엮음, 『정본 운동주 전집』, 문학과 지성사, 2017, 108쪽.

운동주가 1941년에 창작한 시 「무서운 시간」은 내면적 자아가 죽음과도 같은 무서운 절망에 직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운동주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역사적 실천의 시대적 과업 앞에서 갈등하며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그가 처한 시대적 비극과 맞닿아 있다.

1연 1행의 “거 나를 부르는 것”은 시대와 한민족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실천에 대한 내면의 부름을 상징한다. 하지만 시적 주체는 2연에서 “호흡이 아직 여기” 남아 있음을 응답하며, “가랑잎 푸르러 나오는 그늘”에 머물러 있다고 표현한다. 여기서 “가랑잎”은 떡갈나무의 잎으로, 강한 내적 다짐을 상징하면서도, 나약한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드러낸다. 떡갈나무 그늘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기반과 옳은 가치를 상징하며, 이는 당시 연희전문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운동주 자신의 처지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3연에서 시적 주체는 역사적 실천에 나서지 못하는 자신을 “한번도 손들어보지 못한 나”로 묘사하며, 이는 당시의 비극적 현실과 연결된다. “손들어 포함 하늘도 없는” 시대는 보편적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비극을 상징한다. 연속적으로 발발한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조선의 현실은 수많은 젊은이를 전쟁에 강제 동원하거나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우 송몽규의 독립운동 이력과 주변의 실제적 죽음은 운동주에게 깊은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4연에서 “내 한 몸 둘 하늘”이 없다는 표현은 죽음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자신의 무력함을 상징한다. 운동주가 내면의 부름에 응답해 역사적 실천을 결심한다면, 이는 5연에서 “내 죽는

날 아침”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죽음은 무고한 죽음으로 떨어져 나가는 “가랑잎”과도 동일시된다. 그러나 6연에서 시적 주체는 “나를 부르지 마오”라며 자신의 내적 부름을 거부한다. 이러한 거부는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 있”기 때문이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며 더 깊은 성찰을 통해 나아가려는 태도를 반영한다.

운동주 시적 주체는 자신의 삶을 ‘아직 아님’의 상태로 바라보며, 불확실한 미래성을 향한 희망과 두려움의 극점 사이에서 긍정과 부정의 동시성을 띤 비극적 태도를 형성한다. 이는 절망감을 극복하고 긍정적 의식을 발현하며, 삶의 목적 지향적 시세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운동주의 시세계는 불안과 절망이라는 정동적 감정을 동반하면서도, 한민족 공동체의 고통(공통감각의 공유)과 동시대 젊은이들의 죽음을 성찰하며 보편적 사랑과 자유의지에 대한 염원을 담는다.

시 「또 다른 고향」은 한민족의 고통과 자신의 죽음을 동일시하며, 내면적 자아의 분열적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은 병리적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백골 몰래” 하나의 자의식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이라는 이상적 세계를 지향하며, 시적 화자에게 있어 회상적 세계와 몽상적 세계를 혼재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 고향은 시적 주체의 색채감각을 통해 목적 지향적 운동주 시세계로 구현되며, 비극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염원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 정동은 감각적 경험과 신체적 반응을 매개로 형성되는 즉각적이고 비언어적인 감정의 흐름이다. 정동은 주체의 인지적 사고 이전에 신체적으로 먼저 경험되는 것으로, 외부 환경과의 접촉 속에서 특정한 양태를 형

성한다. 정동의 양태는 색채감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색채는 정동적 흐름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색채는 물리적인 시각적 자극일 뿐만 아니라, 주체의 내면적 정동과 신체적 반응을 유도하는 감각적 기호인 것이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어
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
온다//어둠 속에 곱게 풍화 작용하는/백골을 들여다보며/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백골이 우는 것이냐/아름다운 혼
이 우는 것이냐//지조 높은 개는/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어
둠을 짓는 개는/나를 쫓는 것일 게다//가자 가자/쫓기우는 사
람처럼 가자/백골 몰래/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또 다른 고향」 전문²⁸⁾

운동주의 시에서 시적 주체는 검은빛²⁹⁾ “어둠”으로 표상된 억압과 폭력 속에서 불안과 절망을 느끼며, “고향에 돌아온 날 밤” 자신의 죽음을 관념적이고 자각적으로 의식한다. 그는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음을 통해 스스로를 죽음의 상태로 상상하며 고통스러운 내면적 자각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어두운 방”에서의 죽음에 대한 자각은 “풍화 작용”으로 발생한 먼지처럼 허무함을 불러올 수 있지만, 운동주는 이를 내적 구

28) 운동주, *홍장학* 역음, 앞의 책, 2017, 118쪽.

29) 색채는 문화적·심리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상징성을 지니며, 특정한 감정과 정동적 반응을 유도한다. 색채심리학과 문학적 해석에서 색채는 단순한 시각적 속성을 넘어 정서적·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며, 주체의 내적 상태와 환경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발휘한다. 검은 색은 부정적인 색을 상징하기도 한다. 검정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죽음, 무지, 절망, 슬픔, 사악함과 연관된다. 검정은 불길한 조짐이고, 불행한 사건의 표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검은색의 심연은 혼돈이고, 미지적인 무한성이다. 장석주, 『색채의 향연』, 호미, 2019, 163~165쪽.

원의 가능성으로 전환한다. 이는 산문 「별동 떨어진 데」에서 “어둠 속”에서 불현듯 들려오는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불어오는 바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바람은 유기체적 우주관에서 영원회귀적 생명성을 상기시키는 상징적 매개로 기능한다.

시적 주체는 절망 속에서 분열하는 내면적 자아를 “곱게 풍화작용 하는 백골”로 상상한다. 여기서 “백골”이 지닌 흰빛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직시와 자각을 넘어, 흰빛이 내포하는 생명적 의지에 대한 갈망으로 읽을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이러한 상상적 “백골”을 통해 흰빛의 생명력을 갈망하며 자신의 죽음을 성숙한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내적으로 애도한다. 이 과정은 상실을 인식하고, 상실된 자아를 지속적으로 마음속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상상적 능력을 동반한다.

운동주의 시적 화자는 내면적 자아를 본능적 자아, 현실적 자아, 이상적 자아의 세 층위로 나눈다. 본능적 자아는 분열과 죽음을 인식하고, 현실적 자아는 현재의 자기 인식을 드러내며, 이상적 자아는 “아름다운 혼”이라는 형태로 지향하는 자아를 상징한다. 이 세 층위는 “눈물짓는 것”으로 상실한 자아를 기억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자아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찰과 회복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상실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병리적 분열을 극복하고 상실된 자아를 이미지화하여 재생시키는 능력을 포함한다.

운동주의 시에서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 상징적 존재로 등장한다. 이는 혈연, 사회적 관계를 넘어 우주와 세계의 유기적 전체성과 생명적 무한성을 지향하는 존재자

의 구원적 의지를 나타낸다. 나아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세계관을 상징하며, 불안과 절망 속에서도 긍정의식과 내적 용기를 발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적 주체는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라고 발화하며, 시대의 어둠과 억압에 물들지 않고 삶과 죽음의 대립 속에서 긍정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시적 주체가 나아가는 소명의 방향은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이다. 이 고향은 회상적 세계와 몽상적 세계가 혼재한 공간으로, 색채감각을 통해 운동주의 삶의 목적 지향적 시세계³⁰⁾로 구현된다. “또 다른 고향”은 단순히 이상적 장소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운동주의 시적 세계가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추구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운동주의 시세계는 그의 내면적 자아와 역사적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성찰하며, 상실과 고통을 긍정으로 전환하는 인간적 가능성을 탐구한 결과물이다.

3 타자 관계 맺기 자기동일성 재구성

운동주는 끊임없는 상호 관계 속에서 포착(prehension)과 파악을 통해 자신의 의미를 구성하고 발전해가는 방식으로, 붉은 빛 이미지로부터 성장 주체로서 기억소 단위의 회상 작용을 통해서 타자 관계 맺기를 통해 자기동일성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30) 행복은 특정한 종류의 지향성과 연루된다. 그것을 목적 지향적이라고 부르곤 한다. 이는 단지 우리가 현재의 느낌으로 무엇인가에 대하여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태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상상하면 그것이 우리를 위해 행복한 것이 된다는 의미이다. 종종 행복은 하나의 최종 목적이든 혹은 그 자체가 목적이든,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그 '무엇'으로 기술된다.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앞의 책, 2015, 64쪽.

운동주의 시세계는 타자와의 상호작용과 공명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기 갱신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얻은 경험과 정동적 교감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정신적 질서를 구축하며, 새로운 시적 주체로 나아간다. 이러한 시적 주체는 개인적 정체성을 넘어서, 우주적 연쇄망 속에서 타자와 함께 이루어진 존재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도 책머리에 아롱거리며/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간/나의 방에
 풍진/제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초 한 대」 부분³¹⁾

시적 주체는 “책머리에 아롱거리”는 “촛불”³²⁾을 응시하며, 그 불빛은 시적 화자에게 아니마의 몽상을 불러일으킨다. “촛불”은 공중으로 타오르며, 상승하고 수직으로 뻗어 오르는 붉은빛은 화자의 내면에 밝음, 따뜻함과 같은 서정적 울림을 일으키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염원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촛불이 “선녀처럼” “아롱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하면, 일제의 억압과 고통, 그리고 절망으로 뒤틀린 암흑의 시대적 상징은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창구멍으로 도망가 버린다”는 상징적 전환이 나타난다.

31) 윤동주, *홍장학 엮음, 앞의 책*, 2017, 17쪽.

32) 불꽃 앞에서 몽상의 가장 항구적인 법칙의 하나에 따라, 몽상가는 단지 그 자신의 것만이 아닌 하나의 과거, 세계의 원초적인 불의 과거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를 세계로부터 떼어 놓고 몽상가의 세계를 확대시킨다. 촛불은 가물거리는 빛뿐인 캄캄한 구석에서 싸우는 가치와 일체가 되고, 어둠에 맞서는 약한 빛과 일체가 된다. 몽상가는 불꽃 앞에서 책 속의 낡은 지식을 떠나 사유로 향하며, 삶과 죽음의 잘 만들어진 대립물을 생각한다. 불꽃은 하나의 생성을 향해가는 긴장한 세계로, 몽상가는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와 생성을 본다. 가 스톤 바슬라르, 이가림 옮김, 『촛불의 미학』, 문예출판사, 2018, 23~62쪽.

여기서 “매”는 당시 일제의 무력과 억압을 상징하며, “핑”은 억압받는 한민족 공동체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촛불이 만들어낸 “방에 풍긴” “위대한 향내”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향한 의미론적 탐색으로 나아간다. 이는 시원적 시간성에 대한 깨달음으로, 운동주가 탄생(生)의 원형적 기억과 경험에서 출발해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긍정적 내면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운동주는 촛불이 발하는 빛과 향기가 공상과 추상³³⁾의 위험성을 넘어서, 내면적 긍정과 희망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고 인식한다. 이는 단순히 시대적 억압에 대한 도피가 아니라, 자신의 시적 상상력을 통해 밝음과 생명력으로 향하는 상징적 발걸음으로 읽힌다. 촛불의 서정적 이미지는 단순한 물리적 빛이 아니라, 시적 주체의 내면적 자각과 세계에 대한 희망적 응시를 상징한다. 이러한 운동주의 시적 전환은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인간적 가능성을 향한 염원과 연결되며, 시대를 넘어선 영원적 시간성과 생명적 연속성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다.

광풍이 휘날리는/북극의 거리/도시의 진주/전등 밑을 헤엄치
는./쪼그만 인어 나./한 몸에 들셋의 그림자./커졌다 작아졌다./
괴롭의 거리/회색빛 밤거리를/걷고 있는 이 마음./선풍이
일고 있네./외로우면서도/한 갈피 두 갈피./피어나는 마음의
그림자./푸른 공상이/높아졌다 낮아졌다.

「거리에서」 전문³⁴⁾

33) ‘공상적인 것’은 ‘상상적인 정열’과 달리 오히려 인간을 자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이 공상적이거나 의지가 공상적인 경우에도 자기는 더욱 없어지게 된다. ‘공상적인 것’에 빠진 인간은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김보경, 「운동주 시에 나타난 비극적 세계의 공간이미지화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2018, 69쪽.

34) 운동주, 홍장학 엮음, 앞의 책, 2017, 20쪽.

촛불의 원형적 상징은 식민지로 왜곡된 도시 문명의 “전등”으로 치환된다. 시적 주체는 “전등 밑”에서 받은 사람이고 받은 물고기인 “인어”를 환상한다. 여기서 인어는 본능적 자아의 남성성³⁵⁾을 나타내며, 이는 번식을 의미하는 동물적 본능과 연결된다. 그러나 촛불의 상징성이 도시적 전등으로 대체되면서, 시적 주체는 본능적 자아, 현실적 자아, 이상적 자아가 “한 몸” 안에서 갈등하는 불안한 내면 상태를 드러낸다. 이 자아들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며 내적 대립과 갈등을 보여준다.

식민지 도시의 사건들은 시적 주체에게 “광풍이 휘날리는 북극의 거리”로 비유된다. 이 공간은 죽음의 공포와 싸늘함이 지배하는 혼돈의 장소이며, 이는 병리적 “푸른 공상”을 불러일으킨다. 일제강점기의 도시적 혼돈은 운동주가 지각했던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식민지 현실은 불안을 증폭시키며, 이는 “괴롭”으로 표현되고, “회색빛 밤거리”라는 이미지 속에서 허무적 감정과 “마음의 그림자”로 전이된다.

그러나 시적 주체는 기억의 단위 속에서 몽상적이고 원형적인 혈연 공동체를 떠올리며 이러한 불안과 허무에서 벗어나려 한다. 혈연 공동체는 운동주의 내면에서 식민지적 혼돈과 대립하는 안정적이고 상징적인 원형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이는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과 연대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며, 그의 시적 세계가 지향하는 평화적이고 조화로운 이상 세계를 암시한다.

운동주의 시적 주체는 촛불의 서정적이고 원형적 상징에서 출발해 전등이라는 도시 문명의 왜곡된 상징으로 이동하며, 내

35) 생물학적인 남성의 정자를 의미한다.

면적 갈등과 대립을 경험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회상 기억과 몽상의 힘을 통해 자신의 허무와 불안을 극복하고, 공동체적 연대와 희망으로 나아가는 상징적 전환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운동주의 시세계가 고통스러운 현실과 이상적 세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조화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서사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양간 당나귀/아—○ 양 외마디 울음 울고, //당나귀 소리에 /
 으— 아 아 애기 소스라쳐 깨고, //등잔에 불을 다오. //아버지는
 당나귀에게/짚을 한 키 담아 주고, //어머니는 애기에게/젖을
 한 모금 먹이고, //밤은 다시 고요히 잠드오.

「밤」 전문³⁶⁾

1937년에 창작된 시 「밤」에서는 기름 먹은 “등잔”의 붉은 불빛을 매개로 회상적 세계가 형상화된다. 이 불빛은 어두운 “밤” 속에서 불안을 잠재우는 상징으로, 촛불보다 더 오래 지속될 은유로 타오른다. “등잔”의 붉은 불빛은 삶의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며, 꺼지기 쉬운 삶과 죽음의 대립을 상징한다. 동시에, 밤의 불안을 잠재우고 생의 소박함과 따뜻함을 드러내는 밝음으로 작용한다.

시적 화자는 아버지의 상징적 장소인 외양간에서 울고 있는 “당나귀”의 소리를 듣는다. 이 울음에 “소스라쳐 깨” 난 “애기”는 시적 주체가 지각하는 몽상적 세계와 동물적 태도를 공유하며, “당나귀”와 동일시된다. “애기”는 어리고 온순한, 혹은 고집

36) 운동주, *홍장학 엮음*, 앞의 책, 2017, 66쪽.

스러운 몽상적 존재로, 외양간의 당나귀는 아버지와 함께 생의 여정을 떠나는 노동의 의미를 내포한다.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당나귀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고단한 생존의 노동을 상징한다.

불안이 감도는 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짚을 한 키 담아” 당나귀에게 먹인다. 이는 단순한 행위 이상의 상징으로, 몽상적 식물의 태도를 통해 생명의 연속성을 습득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어머니는 주된 생활 공간인 방에서 깨어난 “애기”에게 “젖을 한 모금 먹이”며 생명을 상징적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행위는 생명의 지속과 연결을 상징하며, 불안한 “밤” 속에서 내면적 안정과 소박한 따뜻함을 제공한다.

시적 주체가 지각하는 “밤”은 불안과 어둠을 넘어, 등잔의 붉은 불빛으로 내면적 밝음과 희망으로 전환된다. 방 한편에서 고요히 흔들리는 등잔불은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다가올 시대를 향한 미래적 희망의 불빛으로 타오른다. 이 등잔의 불빛은 가족의 공간 속에서 생의 연속성을 상징하며, 상승적 수직성과 지속성을 통해 밤의 불안을 잠재운다.

결국, 「밤」에 등장하는 “등잔”은 단순한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어둠과 불안을 넘어서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며 만들어가는 소박한 생의 따뜻함을 비추고, 다가올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될 긍정적 에너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운동주의 시는 일상적 공간과 행위를 통해 삶의 본질과 생명적 의미를 시적으로 승화시키며,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밝음을 향한 염원을 담아낸다.

붉은 사과 한 개를/아버지, 어머니, /누나, 나, 넷이서/겹질째로
송치까지/다—노나 먹었소.

「사과」 전문³⁷⁾

대동강 물로 끓인 국/평안도 쌀로 지은 밥/조선의 매운 고추장//
식권은 우리 배를 부르게.

「식권」 부분³⁸⁾

1936년에 창작된 시 「사과」에서 시적 주체는 혈연 공동체와 함께 “붉은 사과 한 개”를 나눠 먹는 장면을 통해 따뜻한 유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 개”의 사과를 “넷이서” 나눠 먹는 상황이 생활의 궁핍과 물질적 가난을 연상시킬 수 있지만, 시적 이미지와 분위기는 그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붉”게 잘 익은 사과는 행복한 원형적 기억과 혈연 공동체의 조화로운 관계를 나타내며, 이 사과를 함께 나눠 먹는 행위는 생의 동력을 이루는 따뜻한 붉은빛으로 채워진 상징적 행위로 읽힌다.

사과의 붉은빛과 형태는³⁹⁾ 조각으로 나뉘어도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아버지”, “어머니”, “누나”, “나”—가 사이 좋게 “다 노나” “먹”었다는 행위를 통해 배부름이라는 감각적 만족을 표현한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나눔을 넘어, 혈연 공동체가 생명력과 따뜻함을 공유하며 존재적 에너지를 강화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사과는 혈연 공동체의 단단한 연대와 조화로운

37) 윤동주, *홍장학 엮음, 앞의 책*, 2017, 57쪽.

38) 윤동주, *홍장학 엮음, 앞의 책*, 2017, 32쪽.

39) 과일의 미가 동글면 동글수록 그것은 확실하게 여성적인 힘이 있다. 가스통 바슐라르, 김용권 옮김, 『몽상의 시학』, 동문선, 2007, 201쪽.

관계를 담은 원형적 상징으로, 물질적 궁핍을 넘어선 정신적 풍요를 암시한다.

한편, 시 「식권」에서는 시적 화자가 “국”과 “밥”과 “고추장”을 먹는 과정이 등장한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식사의 묘사가 아니라, 시적 주체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드러낸다. “국”과 “밥”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은유로, 시적 화자의 생을 이루는 기초적인 요소로 해석된다. 붉은빛을 띤 “매운 고추장”은 단순한 양념 이상의 상징으로, 열정적이고 생명력 있는 상상적 정열을 내포하며, 온전한 아니무스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맥락을 형성하는 요소는 “대동강”, “평안도”, 그리고 “조선”으로 명명된 공간적 배경이다. 이 지명들은 단순히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 공동체의 지정학적 특성과 정서적 유대를 담고 있다. “식권”이라는 상징적 과정은 이러한 공간적 특성과 연결되며, 시적 화자가 “우리”라는 공동체에 편입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는 시적 주체가 단순히 개인의 생존을 넘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생(生)을 영위해 가는 존재로 자리 잡는 과정을 상징한다. 결국, 이러한 사회화 과정은 시적 주체의 “배를 부르게” 하며, 생명력과 열정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과 유대를 가능하게 한다.

「사과」와 「식권」은 각각 혈연 공동체와 사회적 공동체라는 두 층위를 통해, 시적 주체가 생명과 성장을 경험하는 과정을 다룬다. 이 두 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붉은빛의 상징성은 생의 따뜻함, 열정, 그리고 존재적 에너지를 나타내며, 이를 통

해 운동주 시의 세계는 생명력과 연대의 본질을 시적으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세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중략)//아—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키었느냐!/나는 측은한 마음이 움직이었다./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만지작 거릴 뿐이었다./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리라 하고“애들이”불러보았다./(중략)/그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고개로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질어가는 황혼이 밀려들 뿐—

「투르게네프의 언덕」 부분⁴⁰⁾

일제강점기 동안 진행된 침략전쟁을 위한 구조적 수탈과 착취는 수많은 한민족 구성원을 극단적인 “가난”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 결핍을 넘어, 죽음과도 같은 절망과 고통을 의미한다. 운동주의 시에서 등장하는 “세 소년 거지”는 이러한 극단적 가난의 상징적 형상으로, 시적 주체가 가진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이라는 자본주의적 물질과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여기서 “세 소년 거지”는 상상적으로 운동주 자신의 형제들을 투영한 이미지일 수도 있다.

“세 소년 거지”와의 만남은 시적 주체에게 사회 구성원 간의 불평등이라는 갈등을 일깨운다. 시적 화자는 한민족이 겪고 있

40) 운동주, *홍장학 엮음*, 앞의 책, 2017, 100쪽.

는 폭압과 극단적 가난을 직시하지만, “무턱대고 내어줄 용기”가 없음을 고백한다. 이는 단순히 도움을 주지 못한 데서 오는 죄책감을 넘어서, 타자에 대한 선부른 연민이 시대적 병폐 속에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자신의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시적 주체는 “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리라”는 연민을 품지만, “세 소년 거지”들은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그를 외면한다. 이는 시대적 병폐 속에서 타자가 느끼는 신뢰 결핍과 삶의 비참함을 암시한다.

시적 주체는 “세 소년 거지”와 마찬가지로 고단한 삶의 지속을 위해 “고갯길”에 오르며, 그 끝에서 삶의 여정을 관망할 수 있는 “언덕 위”로 향한다. 이 “언덕”은 삶의 고난과 생존을 위한 방향성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그곳에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발화하며 시적 화자는 소외의식을 느낀다. “언덕”은 삶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타자와의 단절과 고독을 강조하며, 이는 황혼의 짙어가는 어둠처럼 죽음과 상실감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소외와 상실감은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적 주체는 “짙어가는 황혼” 속에서 타자와 관계를 맺으려는 사랑과 생명적 의지를 발견하며, 이를 붉은빛 감각으로 변환한다. 이 붉은빛은 단순히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시적 주체의 내면에서 발현되는 생명력과 사랑을 의미한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현된 이러한 의지는 삶의 지속 가능성을 향한 희망적 방향성을 드러내며, 소외와 절망을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을 시적으로 형상화한다.

결국, “세 소년 거지”와의 만남과 시적 주체의 언덕 위 발화는, 불평등과 소외 속에서도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생명적 의지와 희망을 발견하려는 시적 기능을 수행한다. 운동주의 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극단적 가난과 소외라는 현실적 상황을 초월하여 인간적 연대와 생명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는 단순히 비참한 현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존과 사랑의 가능성을 시적으로 탐구하려는 운동주의 독창적인 시적 세계를 보여준다.

4 상상된 공동체와 엘랑비탈(élan vital)

흰빛은 생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동물의 알과 젖의 색⁴¹⁾에서 드러나듯, 생명의 근원적 요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흰빛은 그 자체로 존재의 생명성을 내포하며, 이를 지각하는 감각과 감수성에 강렬한 파동을 일으킨다. 이는 흰빛이 단순한 색채를 넘어 미의식의 원점에서 감각적으로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흰빛은 생명성의 신성함을 품으며, 고요하면서도 오연하게 빛나는 존재로 자리 잡는다.⁴²⁾

‘희다’라는 색채어는 우주의 중심적 존재인 태양에서 유래된 순우리말로, 흰빛의 기원이 우주의 질서와 생명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한자 ‘백(白)’ 또한 태양을 나타내는 ‘일(日)’ 위에 빛을 가리키는 한 획(/)을 더해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흰빛은 밝음, 끊이지 않음, 그리고 영원불멸의 의미를 담고 있다. 흰빛

41) 장석주, 앞의 책, 2019, 25쪽.

42) 장석주, 위의 책, 25쪽~26쪽.

은 해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대낮의 색⁴³⁾ 으로, 우주와 자연의 조화 속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흰빛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질서의 회복과 도덕성의 중심으로 향하는 역동성을 나타낸다. 이는 앙리 베르그송이 말하는 생명체의 본질과도 연결된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생명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약동하며 움직이는 연속적 흐름으로 존재한다. 그는 이러한 생명의 본질을 엘랑비탈⁴⁴⁾, 즉 생명의 창발적 도약으로 설명한다.

인간이 더욱 나은 인간의 싹이며, 노랗고 무거운 불꽃이 희고 가벼운 불꽃의 싹인 것과 같이, 세계는 더 나은 세계의 싹이다. 흰빛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흰빛을 통해 세계는 본연의 자리로 복귀하며, 이는 우주의 질서화와 창조적 회복을 의미한다. 인간 또한 더욱 나은 인간으로 발전하는 존재로, 흰빛의 정복과 약동을 통해 도덕성과 생명성을 회복하며 우주적 질서를 사유한다.

초 한 대—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나는 깨끗한 제물을 보았다.//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그리고도 그의 생명인 심지(心志)까지/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불살라버린다.

「초 한 대」 부분⁴⁵⁾

43) 박영수,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 살림, 2012, 92쪽.

44) 엘랑비탈은 모든 생명체의 내적 충동이며, 창조적 진화를 이끄는 근본적 힘이다. 생명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동하며, 이러한 연속성과 창조성은 생명체의 본질을 형성한다. 엘랑비탈은 생명체가 단순히 기계적 법칙이나 물질적 결정론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힘에 의해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의식 또한 포함한다. 생명은 기계론적·물질론적 원리로 환원될 수 없으며, 창조적이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앙리 베르그송, 황수영 옮김, 『창조적 진화』, 지만지, 2008, 53쪽~57쪽.

45) 윤동주, 홍장학 엮음, 앞의 책, 2017, 17쪽.

시적 주체가 흰 “초”를 응시하며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을 상상하는 장면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흰 “뼈”라는 간단한 구조가 지닌 존재론적 생명성을 자각하는 순간을 표현한다. 이는 생명과 죽음,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타자의 강인한 의지를 발견하고, 그 존재의 본질적 생명성을 직시하려는 시적 주체의 내적 응시이다. 상상적 흰 “뼈”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를 넘어, “흘”리는 “백옥 같은 눈물과 피”, 그리고 생명과 의지를 상징하는 “심지(心志)”를 통해 생명의 본질과 연결된다. 이는 흰빛이 내포한 생명성과 숭고함의 표현으로 읽힌다.

운동주의 시 「팔복(八福)」에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은 슬픔의 고백을 넘어서, 시대적 고난과 희생 속에서 발견되는 생명의 숭고함을 드러낸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라는 표현은 슬픔을 단순히 개인적 감정으로 제한하지 않고, 시대적 절망과 타자의 희생을 윤리적 주체로서 기억하려는 의지로 확장한다. “깨끗한 제물”은 종종 운동주의 자기희생적 의식으로 해석되지만, 이는 또한 시적 화자가 내밀한 응시를 통해 한민족 구성원의 숭고한 생명적 고귀함을 자각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시적 주체인 “나”가 바라본 것은 개별적 타자의 “그의 몸”이며, 이는 보편적 생명의 가치와 연결된다.

식민 권력의 억압과 폭력 속에서 생명이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광명의 제단”은 무너져가고 있다. 이는 시대의 어둠과 혼돈을 상징하며, 생명의 존엄성과 희망을 짓밟는 현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시적 주체는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즉 혼돈이 덮치기 전에 희생된 타자의 생명적 숭고함과 흰빛의 순결함

을 보았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흰빛은 단순히 희생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의 고귀함과 숭고한 “깨끗한 제물”의 의미를 통해 생명적 의지를 발견하게 한다.

운동주의 시적 세계에서 슬픔은 비탄의 감정을 넘어서, 잊지 못하고 기억하려는 윤리적 주체로서의 의지⁴⁶⁾를 드러낸다. 이러한 슬픔은 시대적 절망 속에서도 생명을 긍정하고, 생명적 의지를 발견하려는 시적 화자의 내면적 노력으로 읽힌다. 흰빛은 생명과 희망의 상징으로서, 타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시대적 어둠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운동주의 시가 단순히 현실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의 본질과 숭고함을 통해 인간적 가능성과 윤리적 비전을 모색하는 고유한 시적 지평을 보여준다.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
우다//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슬픈 족속」 전문⁴⁷⁾

다들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검은 옷을 입히시오//다들 살아가
는 사람들에게/흰옷을 입히시오//그리고 한 침대에/가지런히
잠을 재우시오//다들 울거들랑/젖을 먹이시오//이제 새벽이 오
면/나팔소리 들려올 계외다.

「새벽이 올 때까지」 전문⁴⁸⁾

46) 이성복, 『무한화서』, 문학과 지성사, 2018, 51쪽.

47) 운동주, 홍장학 엮음, 앞의 책, 2017, 92쪽.

48) 운동주, 홍장학 엮음, 앞의 책, 2017, 110쪽.

시적 주체는 시대적 고통 속에서 참담한 한민족을 향한 생명적 의지와 사랑을 “흰”빛의 성숙한 슬픔으로 표현하며, 검은빛으로 표상된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고자 한다. 윤동주의 시에서 등장하는 「슬픈 족속」은 억압과 수탈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한민족을 상징한다. 이들은 “거친 발”, “슬픈 몸집”, “가는 허리”처럼 가난하고 피폐한 외형적 특징으로 그려지며, 이는 검은빛으로 표상된 한민족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적 주체는 이러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흰 수건”, “흰 고무신”, “흰 저고리 치마”, “흰 띠”를 능동적으로 “두르”어 주며, 흰빛이 가진 생명적 의지와 희망을 부여하고자 한다.

시대적 억압과 고통 속에서, 혹은 본질적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비적 모습은 필연적으로 드러난다. 시적 주체는 희생당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오”라고 발화하며, 애도의 표식으로서의 검은빛을 통해 유기체적 세계관의 질서적 합일을 표현한다. 검은 옷은 상실의 표식을 넘어서, 죽음을 품고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 애도의 표현으로 읽힌다. 반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흰옷을 입히시오”라고 발화하며, 흰빛이 내포한 생명적 의지와 지속을 결연히 갈망한다. 이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대적 억압 속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생(生)과 사(死)는 뚜렷하게 대비되지만, 본질적으로 이 경계는 “한 침대에서 가지런히 잠을”자는 모습처럼 모호하다. 이는 삶과 죽음이 단순히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품고 있는 상호 관계적 구조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시적

주체는 “다들 울거들랑”이라는 발화를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상호 관계적 애도의 울음을 발산하도록 한다. 이 애도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생명적 연대와 소생을 갈망하는 정신적 소생의 울음이다.

이러한 애도의 이면에는 흰빛의 순결함과 “젖”의 흰빛이 내포한 생명적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젖은 생명을 성장시키는 은유로, 흰빛이 가진 생명성과 지속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운동주의 시적 주체는 시대적 고통 속에서 단순히 슬픔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애도를 통한 생명적 의지의 회복을 염원한다. 이는 고통받는 한민족의 현실을 넘어, 생명과 희망의 본질적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적 주체의 내적 염원을 드러내며, 운동주 시세계의 핵심적인 방향성을 보여준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바람이 부는데/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중략)//바람이 자꾸 부는데/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강물이 자꾸 흐르는데/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바람이 불어」 부분⁴⁹⁾

시 「바람이 불어」는 흰빛이 내포한 생명적 의지와 우주적 영속성을 향한 매개로 작용한다. 시의 마지막 행에서 시적 화자가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고 표현한 것은, 그의 사상과 의지가 매우 견고하고 안정된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시적 화자는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인지 알 수

49) 운동주, *홍장학 엮음*, 앞의 책, 2017, 117쪽.

없는 “바람”이라는 무형의 실재성으로부터 괴로움이 없는 우주적 질서와 시적 합일로 나아가려는 열망을 드러낸다.

몽상(상상)한다는 것은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적 통합의 과정으로 작용한다. 이는 앙리 베르그송의 순수 지속 개념과 맞닿아 있다. 베르그송의 순수 지속은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진정한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며, 이는 끊임없이 서로 침투하면서 무한히 생성되는 질적 다양성으로 특징지어진다.⁵⁰⁾ 이러한 순수 지속의 세계는 깊은 자아, 즉 자유롭고 본질적인 생명과 만나는 무구한 처소로 정의된다. 운동주의 시적 화자는 이러한 순수 지속의 개념 속에서 흰빛이 가진 생명적 의지와 우주적 질서를 향한 시적 합일을 꿈꾼다.

운동주의 시세계는 흰빛이 상징하는 생명성과 질서 속에서, 시적 합일의 결과로 “별을 노래하는 마음”⁵¹⁾을 드러낸다. 운동주는 “별의 시인”으로 불릴 만큼, 그의 시적 주체가 검은빛으로 표상된 시대적 어둠을 넘어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이라는 이상적 공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시적 화자는 붉은빛 감각을 통해 타자와 관계를 맺고, 자기동일성을 재구성하며 새로운 시적 주체를 형성한다. 이 새로운 주체는 타자에 대한 애도와 인륜적 상상된 공동체의 지향성을 통해 열량비탈의 생명적 창조성을 드러낸다.

50) 앙리 베르그송, 황수영 옮김, 앞의 책, 2008, 142~144쪽.

51) 우리가 영위하는 삶에서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에는 별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고독을 허물어 버린다. '본다는 것'과 '바라본다는 것'은 여기서 그들의 역동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다. 그때에는 물리적 거리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무한한 통공(상호 교통)은 무한한(공간적) 크기를 지워 버린다. 별들의 세계는 우리 영혼을 감동케 하므로 그 세계는 바로 시선의 세계인 것이다. 가스통 바슐라르, 정영란 옮김, 『공기와 꿈』, 이학사, 2001, 331쪽.

운동주의 시적 상상 속에서, 모든 생명과 무생물은 결국 별에서 왔다는 근원적 사유를 공유한다. 이는 시 「초 한 대」에서 검푸른빛으로 표상된 “암흑”으로부터 흰빛의 특별한 세계로 전환되는 상징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결국, 흰빛은 운동주의 시세계에서 우주적 질서와 생명적 본질을 향한 염원을 구현하는 매개체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흰빛은 암흑과 붉은빛의 세계를 통합하며, “별”로 표상되는 우주적 영속성과 합일하는 궁극적 시적 사유의 도달점을 형성한다.⁵²⁾

가지, 가지 사이로 반짝이는 별들만이/새날의 향연으로 나를 부른다.

「산림」 부분⁵³⁾

별 하나에 추억과/별 하나에 사랑과/별 하나에 쓸쓸함과/별 하나에 동경과/별 하나에 시와/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佩), 경(鏡), 옥(玉),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별 헤는 밤」 부분⁵⁴⁾

52) 과학적인 물질적 상상력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우주적 시원의 창조 이전에서 빅뱅-은하계-태양계-지구-광물계-물-식물계-동물계-인간계 순서로 광대한 진화가 이루어졌다.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빅히스토리(Bighistory)적인 장구한 진화의 과정이 인간 무의식에 남아 있기에 무(無)의 몽상, 공기의 몽상, 불의 몽상, 광물적 몽상, 물의 몽상, 식물적 몽상, 동물적 몽상, 사물의 몽상 등 다성적인 몽상을 할 수 있다.

53) 운동주, 홍장학 엮음, 앞의 책, 2017, 42쪽.

54) 운동주, 홍장학 엮음, 위의 책, 120쪽.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걸어가야겠다.//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무제(서시)」 부분55)

시 「무제(서시)」에서 운동주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표현하며, 고석규의 논의에 따르듯 자신의 시세계에서 희박적 우주에의 부단한 대결을 보여준다. 운동주는 언제나 현재적 순간인 “오늘”에 머물며, “오늘 밤에도 바람이 스치우는 별”을 통해 흰빛이 내포한 생명적 의지를 사랑하고자 했다. 이 “별”은 우주적 질서와의 시적 합일을 상징하며 운동주의 시적 상상력의 핵심적 기표로 작용한다.

시 「초 한 대」에서는 검푸른빛으로 표상된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 가도록 묘사하며, 시대의 군국주의적 광기와 비극에 저항하는 운동주의 시적 의지를 드러낸다. 시대의 폭력과 억압, 불안과 절망(고통과 괴로움)으로 상징되는 검은빛 어둠과 밤의 표상과 달리 “창구멍으로 도망간” “암흑”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검푸른빛 “암흑은” 시 「쉽게 씌여진 시」에서 “시대 처럼 밝아올 아침” 이전의 “암흑”에서 서서히 푸른빛의 새벽으로 다가오는 희망적 의지를 내포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둠과 밤이라고 생각하는 우주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고 정의되며 실제색은 검푸른빛이라고 한다. 이 암흑 속에서 특별하게 빛나는 “별”은 생명의 지속성과 영속성을 내포하며, 시 「쉽게

55) 운동주, *홍장학 엮음*, 위의 책, 122쪽.

씩여진 시」에서 “시대처럼 다가올 아침”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아침의 이미지는 단순한 물리적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고난의 시대를 넘어 희망과 생명적 회복을 지향하는 상징적 미래를 암시한다.

운동주는 또한 타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공감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적 존귀를 강조한다. 시 「새벽이 올 때까지」에서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사람들의 고통을 성찰하며, 그들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현한다. 이는 인류사적 광기와 잔혹함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타자를 상기하고, 그들의 생명적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운동주의 윤리적 태도를 보여준다.

운동주의 시적 태도는 생명적 의지와 희망을 통해 생태적 휴머니즘 세계관을 형성하고, 인간과 비인간의 생명을 옹호하는 시인의 면모를 분명히 드러낸다. 그의 시는 단순히 시대적 고통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통 속에서 생명의 본질적 가치와 우주적 질서를 탐구하며, 생명적 연대와 회복을 향한 염원을 담고 있다. 운동주의 “별”은 그러한 생명적 지향성을 상징하며, 그의 시세계에서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절망과 희망의 경계를 초월하는 상징적 기표로 자리 잡는다.

바람 부는 새벽에 장터 가시는/우리 아빠 뒷자취 보구 싶어서
/침을 발라 뚫어 눈 작은 창구멍/아롱아롱 아침해 비치웁니다
//눈 내리는 저녁에 나무 팔러 간/우리 아빠 오시나 기다리다가
/혀끝으로 뚫어 눈 작은 창구멍/살랑살랑 찬바람 날아듭니다.

「창구멍」 전문⁵⁶⁾

손가락에 침 발라/쏘—ㄱ, 쓱, 쓱/장에 가는 엄마 내다보려/문
풍지를/쏘—ㄱ, 쓱, 쓱//아침에 햇빛이 째짝./손가락에 침 발라/
쏘—ㄱ, 쓱, 쓱/장에 가신 엄마 돌아오나/문풍지를/쏘—ㄱ, 쓱,
쓱//저녁에 바람이 솔솔.

「햇빛·바람」 전문57)

이 시들에서 검푸른빛 “암흑”으로부터 작은 “창구멍”을 통해 바라보는 행위는, 단순한 외부 관찰을 넘어 공동체적 일상성과 주체성의 회복을 염원하는 상징적 행위로 읽힌다. 시적 화자는 “바람 부는 새벽에 장터 가시는 우리 아빠 뒷자취”를 바라보고, “장에 가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보편적 인간애와 자유의지를 자각한다. 이처럼 “창구멍”은 한민족 공동체의 특수성을 넘어, 인류적 상상된 공동체의 사랑과 자유를 염원하는 은유이다. 이는 밝고 순수한 흰빛이 스며드는 공간으로, 이 흰빛은 생명적 연대와 희망을 상징한다.

흰색은 빛의 가장 순수한 본체로서, 단순한 색채를 넘어 생명의 본질과 연결된다. 흰색은 양극적 상태에서 노란색으로 응축되었다가 빨간색으로 귀착된다. 노란색은 활동성을 불러일으키고, 빨간색은 절대적 활동, 즉 생명의 활동을 상징한다. 반면, 흰색은 활동의 균형을 상징하며, 이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적 균형을 불러일으킨다.⁵⁶⁾ 따라서 흰색은 생명의 근원적 색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사랑, 연대를 촉진하는 색으로 해석된다.

56) 윤동주, 홍장학 엮음, 앞의 책, 2017, 28쪽.

57) 윤동주, 홍장학 엮음, 위의 책, 94쪽.

58) 파버·비렌, 김화중 옮김, 『색채심리』, 동국출판사, 2019, 82쪽.

이러한 색채감각의 총체성은 이윤민의 논의처럼 “서로 친화력을 가지고 감응하는 동질체”⁵⁹⁾로 작용하며, 존재 간의 친밀성과 연결성을 바라는 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장에 가신 엄마 돌아오나”, “눈 내리는 저녁에 나무 팔러 간 우리 아빠 오시나”를 기다리며, 의태어 “살랑살랑”, “술술” 부는 바람을 통해 자연의 움직임과 내면의 감각을 연결한다. 이러한 바람의 움직임은 시 「초 한 대」에서 “선녀처럼 춤을 추는 촛불”의 아니마적 상상력으로 이어지며, 시적 화자의 내면에 밝고 따뜻한 생명력을 타오르게 한다.

“촛불”은 시적 주체의 내면에서 밝은 빛을 발하며, “아롱아롱 아침해”와 “뽀짝”하는 아침 햇빛처럼 밝고 희망찬 세계를 암시한다. 이는 시적 화자가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빛을 통해 삶의 긍정적 의미와 생명적 의지를 발견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작은 “창구멍”으로 스며든 흰빛은 단순히 외부의 빛이 아니라, 생명적 연대와 희망, 그리고 공동체적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적 빛으로, 운동주 시세계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형상화한다. 이는 운동주의 시세계가 시대적 고통 속에서도 인간적 가능성과 생명적 희망을 끊임없이 모색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59) 괴테가 본 색채는 생명 또는 자연의 근본 현상으로서, 안과 밖, 주와 객의 서로 접촉하는 부분에서 생성되는 부단한 운동에 의한 원형상이다. 이는 보려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과의 유기체적 유동성을 내포한 상호작용의 현상으로서 대상과 주체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친화력을 가지고 감응하는 동질체라고 보는 것이다. 이윤민, 「시각·문화적 관점에서 본 괴테의 색채론」,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1권 4호, 2007, 58쪽.

5 맺음말

지금까지 운동주의 시에 나타난 보는 주체의 시각성을 색채 감각(붉은빛, 검은빛, 흰빛)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운동주가 집중적으로 시를 창작했던 1934년 12월부터 1942년 6월까지의 기간은 일제강점기의 억압적 현실과 중첩되며 그의 시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식민 권력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군사 통치 아래에서, 운동주는 부정적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현대 조선어로 시를 창작하며 내면적 저항의식을 드러냈다. 이는 식민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심적 중압감과 타자 관계 맺기를 통해 새로운 시적 주체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시각은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색채감각은 물리적 빛과 관계하면서 시적 주체의 내면에 상상적·상징적 기표로 작용하였다. 운동주의 시는 전기적 사실과 당대의 사회·역사적 변동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그의 시세계에서 색채감각은 고유한 상상력을 통해 사회적 억압과 타자와 개인의 고통을 형상화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 그는 붉은빛, 검은빛, 흰빛을 통해 시대의 고난과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생명적 의지와 희망을 드러냈다.

붉은빛은 회상적 세계와 타자 관계 맺기의 동력을 상징하며, 생명과 사랑의 열정을 표현했다. 검은빛은 시대적 광기와 고통, 타자의 희생을 애도하며, 내면적 성숙과 윤리적 책임감을 환기했다. 흰빛은 생명적 의지와 우주적 질서를 상징하며, 운동주의 시세계에서 이상적 염원을 담은 빛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색채감각의 활용은 그의 시적 상상력이 시대적 고난 속에서도 인간적 가능성과 생명적 희망을 탐구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시 「또 다른 고향」은 운동주가 한민족의 고통과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동일시하면서도, 내면적 병리적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의 자의식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상상된 공동체의 보편적 사랑과 자유의지를 염원하며, 타자 관계 속에서 자기 동일성을 내면화하고 새로운 시적 주체로 나아갔다. 나아가 시세계의 핵심적 상징인 “별”은 모든 생명과 무생명을 포괄하는 우주적인 상상적 기표로, 생명적 연속성과 인간과 비인간의 생명을 옹호하는 생태적 휴머니즘 세계관을 형상화했다.

본 연구는 운동주의 시세계가 식민지 현실과 자아 인식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관계가 색채감각 중심의 시적 상상력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운동주 시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색채론의 정립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의 시는 단순히 억압적 시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적 희망과 인간적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오늘날에도 보편적 깊은 울림을 주는 고유한 시적 지평을 열어 보였다.

□ 논문 투고 일: 2025.01.05

□ 심사 완료 일: 2025.01.24

□ 게재 확정 일: 2025.01.24

참고문헌

기본자료

윤동주, 홍장학 엮음, 『정본 윤동주 전집』, 문학과지성사, 2007.

학위논문

곽금남, 「윤동주 시의 의식세계」,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99.

김보경, 「윤동주 시에 나타나는 비극적 세계의 공간이미지화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2018.

나희덕,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의 시각성」,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2006.

문정련, 「윤동주 시의 자아인식 및 현실인식 연구」, 순천대 석사학위
논문, 2007

이남호, 「윤동주 시의 의도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86.

황석현, 「윤동주 시에 나타난 색채감각 연구」, 서울과기대 석사학위
논문, 2020.

학술논문 및 기사

고석규, 「윤동주의 정신적 소묘」, 『초극』, 삼협문화사, 1954.

곽효환, 「윤동주의 현실인식과 시적 응전 연구」, 『한국문예비평
연구』 제55집, 2017.

김현자, 「자화상의 내면적 깊이와 아침빛 우주」, 『새국어생활』
제8권 3호, 1998.

윤향기, 「박목월과 윤동주 동시에 나타난 색채어 분석」, 『비평문학』
제35집, 2010.

이윤민, 「시각·문화적 관점에서 본 괴테의 색채론」,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1권 4호, 2007, 58.

임이랑, 「윤동주 시에 나타난 푸른빛과 자아의 투쟁·성숙」, 『이화
어문논집』 제28집, 2010.

한예찬, 「윤동주 시 연구-현실인식과 동심 지향성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제19집, 2010.

국내 단행본

고석규, 『윤동주의 정신적 소묘』, 토지, 2019.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2001.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2.

박영수,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 살림, 2012.

송우혜, 『윤동주 평전』, 서정시학, 2018.

신용하, 『일제의 한국민족말살·황국신민화 정책의 진실』, 문학과
지성사, 202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 연세학풍연구소 편, 『윤동주와 그의 시대』,
도서출판 혜안, 2018.

이남호, 『윤동주 시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4.

이선영(편),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삼지원, 2001.

이성복, 『무한화서』, 문학과지성사, 2018.

장석주, 『색채의 향연』, 호미, 2019.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도서출판 한나래, 2003.

한국사편집위원회, 『한국사13:식민지 시기의 사회 경제-1』 및 『한
국사14:식민지 시기의 사회경제-2』, 한길사, 1994.

국외번역 단행본

가스통 바슐라르, 김용권 옮김, 『몽상의 시학』, 동문선, 2007.

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 옮김, 『촛불의 미학』, 문예출판사, 2018.

가스통 바슐라르, 정영란 옮김, 『공기와 꿈』, 이학사, 2001.

-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정동 이론』, 갈무리, 2015.
- 베네딕트 앤더슨, 서지원 옮김, 『상상된 공동체』, 도서출판 길,
2022.
-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2018.
- 스피노자, 강영계 옮김, 『에티카』, 서광사, 2007.
- 앙리 베르그송, 황수영 옮김, 『창조적 진화』, 지만지, 2008.
- 앨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 오영환 옮김, 『과정과 실재』, 민음사,
2021.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장희창·권오상 옮김, 『색채론-자연과학론』,
민음사, 2003.
- 파버·비렌, 김화중 옮김, 『색채심리』, 동국출판사, 2019.

ABSTRACT

The Multilayered Implications of Yun Dong-ju's Poetic World: Perspectives on Poetic Sensibility and Thought

Hwang, Seokhyeon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symbolic meaning of color in Yun Dong-ju's poetry, highlighting its role as a key imaginative signifier in expressing his worldview. Analyzing his use of color in relation to autobiographical, socio-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s reveals how he empathized with the suffering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reflected on identity and subjectivity. Through color, Yun conveyed solidarity, ecological humanism, and a vision of harmony between humanity and nature. His poetry integrates self-reflection, communal love, and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emphasizing coexistence and universal values.

| **Key Words** | poetic perception and thought, affect, the observing subject, red light, black light, white light, the imagined community